

## 아파트 안방의 가구와 주생활행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rniture and Main-Living Behavior of An-bang in Apartment Housing

강형구\*  
Kang, Hyung-gu

강봉임\*\*  
Kang, Bong-Im

이청웅\*\*\*  
Lee, Cheong-Wo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 floor classification and the main-living behavior, and the tendency of using furniture and space by surveying the situations of using An-bang space by apartment dwellers. An-bang is a factor that influences on the unit-plan organization, the whole spatial arrangements, and the spatial relation and size, and has the most severe friction between the tradition and western culture. Given seeing the results shown in the main-living behavior by floor type, that the rest and TV watching were shown to be high in terms of a free-standing type can be said that An-bang is more for the individual rest than for the purpose of family harmony. On the other hand, that the family courtesy was shown to be a little higher a sitting-down type, could be understood that the sitting-down style, which is a traditional living mode, is appearing in An-bang.

Keywords : Apartment, Furniture, An-bang, main-living behavior

주요어 : 아파트, 가구, 안방, 주생활행위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문화가 과거에서 이어져 오는 시간의 연속성상에 존재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거문화는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고유한 생활양식은 그 민족에 의해 변화하여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중심의 다목적 공간이었던 안방은 오늘날 부부 중심의 취침, 몸단장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랑방, 건넌방, 대청 등의 공간이 그 명칭조차 사라진 지금에도 안방은 그 용도나 기능이 변천되었지만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서양의 주택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안방은 온돌의 형식을 취하여 주거유형 및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좌식 온돌로 된 큰방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현대주택으로 변화되면서 거실이 가족 단란과 접객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한옥은 거실보다 안방의 이용률이 더 높으며 현대식 주택으로 갈수록 거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

또한 식사, 가사작업, 집안일(차레, 제사)의 경우에는 거실보다 안방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sup>1)</sup>.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가진 전통성은 한 민족의 행태 반영의 결과이며, 전통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은 전통성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평면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각각의 연구는 연구대상과 방법, 선정된 주거환경의 요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거공간과 관련된 공간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구의 소유정도와 점유량 등 물리적 현황 파악에 한정되어 있고 가구사용 뿐만 아니라 공간구성요소인 마감재료 연구와 더불어 이에 따른 주생활행위와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주거공간에서 안방은 단위평면의 구성과 전체의 실 배치와 실간의 관계 및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전통과 서구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곳으로 안방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에 대한 가구 현황과 사용 행태를 파악하여 그 유형을 분류

\*정회원, 송원대학 건축과 겸임강사  
\*\*정회원, 송원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  
\*\*\*정회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계선자, 居室空間의 活用に 關한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p.93.

하고, 둘째, 안방의 평면유형별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아파트 주거공간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을 하고 한계점을 밝힌다.

1) 연구대상 지역과 연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임의 표집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조사대상은 광주시내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1990년 이후에 건립한 20-30평형 대상으로 한정하고, 안방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주거공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표 1. 조사대상 거주자의 특성

변인	집단	N(%)	변인	집단	N(%)
주부 연령	20대	6(5.7)	남편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9(8.6)
	30대	27(25.7)		사무직	29(27.7)
	40대	49(46.7)		전문직	47(44.8)
	50대이상	23(21.9)		생산직	18(17.1)
가족수	2명이하	8(7.6)	주부 직업	기타	2(1.9)
	3명	14(13.3)		있다	39(37.1)
	4명	45(42.9)	없다	66(62.9)	
	5명	20(19.0)	아파트 평형	20-25평	20(19.0)
6명이상	18(17.1)	25-30평		27(25.7)	
주부 학력	중졸	15(14.3)		30-35평	46(43.8)
	고졸	42(40.0)	35-40평	12(11.4)	
	대졸이상	48(45.8)	평면 유형	입식수평형	34(32.4)
월평균 수입	100-200만원	43(41.0)		입식수직형	41(39.0)
	200-300만원	42(40.0)		좌식형	26(24.8)
	300만원이상	20(19)			

2. 연구의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공간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평면 유형,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 가구와 공간사용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아파트 안방의 평면 유형화

- ① 가구배치 유형에 따른 평면유형 도출
- ② 안방의 평면 유형과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

연구문제 2: 아파트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른 안방 공간구성요소의 사용 행태

- ③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생활 행위
- ④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구와 공간사용 경향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거주지역은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주생활 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광주지역 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

표 2. 평형에 따른 평면유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평면 유형		
		입식수평형	입식수직형	좌식형
평형	20-25평	9(8.6%)	8(7.6%)	3(2.9%)
	25-30평	9(8.6%)	8(7.6%)	10(9.5%)
	30-35평	13(12.4%)	21(20.0%)	9(8.6%)
	35-40평	3(2.9%)	4(3.8%)	4(3.8%)
계		34(32.4%)	41(39.0%)	26(24.8%)

의표집을 하였고, 아파트는 1990년 이후에 분양된 것으로 규모는 20, 30평형대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거주자의 특성은 부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부부의 직업, 월 평균수입, 가족수, 평면유형 등을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주부의 연령은 40대이고, 4인 가족형이며, 월평균소득이 100-2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대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지역을 한정된 결과로 이들 지역에 40대 주부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형에 따른 안방의 평면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평면유형은 조사결과에 따라 입식수평형, 입식수직형, 좌식형으로 나누었으며 기타유형(4개)은 제외하였다. 이는 안방의 가구중에서 대부분이 소유하고 있고 가장 면적 점유율이 높은 장롱과 침대를 중심으로 평면에서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나눈 것이다.

자료수집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120부를 배포 11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에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응답이라고 판단되는 7부와 기타유형으로 분류되었던 4부를 제외하고 101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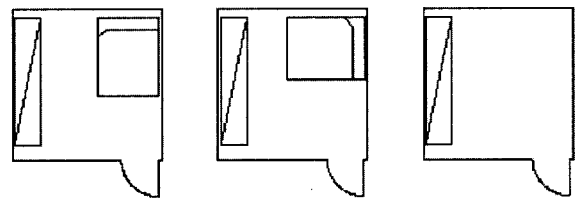


그림 1. 아파트 안방의 평면유형 분류

표 3. 안방의 평면유형

평면유형	빈도수
입식수평형	34(32.4%)
입식수직형	41(39.0%)
좌식형	26(24.8%)

## II. 주거공간과 가구

### 1. 주거공간과 가구

인간의 행동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욕구를 주체로 하는 내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지며 행동의 외적 조건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sup>2)</sup>.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공간을 실내, 즉 인간이 사용하도록 제공된 자원이요, 인간의 삶이 내재하는 곳에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는 공간이란 모든 장소의 총화 즉, 방향과 질적 특성을 갖춘 역동적인 장(field)이라 하였다. 인간은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공간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호흡하며, 공간 속에서 행동과 규제를 받는다. 인간은 그러한 공간을 자발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선정하기도 하였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sup>3)</sup>,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과 주거공간사이에 오차가 생기게 된다. 즉, 주거는 생활의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되며, 생활하여 가는데 지장을 주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공간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야 할 곳이다<sup>4)</sup>. 이러한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역할은 크게 작용하게 된다. 즉, 어떠한 종류의 가구가 실내에 놓이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며 생활의 양식이 표현되며 가구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가구 선정과 배열은 거주자로 하여금 주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더욱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 인자로서 주공간 환경을 어느 정도 수정할 뿐 아니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며 생활의 양식이 표현되며 가구 사용자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주공간의 가구사용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가구는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실용성과 장식성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작업, 휴식, 취침, 식사, 수납 등의 인간의 복잡한 생활기능을 만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활양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해준다. 이러한 가구의 일반적 기능은 대공간적(對空間的) 기능, 대인적(對人的) 기능, 대환경적(對環境的) 기능, 대사회적(對社會的)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공간적 기능은 가구가 지닌 기능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결정되어질 만큼 가구는 공간 자체에 물리적인 결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공간의 조직을 건축적 요소로서 수납공간을 형성하거나 각 공간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배치방법에 따라 동선

을 결정하고 대화 공간 등을 결정한다.

대인적 기능은 인간의 공간사용행위 척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작업, 휴식, 수납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인간행위 척도에 맞는 가구를 말한다. 이는 인간공학적 입장에서 인간척도는 물론 심리적 휴먼 스케일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생활행위는 가구에 의해 입식생활, 좌식생활로 구분되어지며, 인체나 생활행위는 민족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반적인 여건과 가구의 표준치수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

대환경적 기능은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통일성있는 디자인과 크기로 미적 효과를 높이며 타 기물과 함께 공간의 순위,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변동시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유기적이며 분리 해체가 용이하고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의 Privacy, 가족의 Privacy 등의 변화요인을 숙지하여 제 요인에 적합하고 변형 가능한 공간의 그룹화, 활용화가 가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사회적 기능은 가구가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여 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재료면에서 자원의 재순환, 대체자원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적으로 재생의 연구면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홍<sup>5)</sup>은 서구에서의 주거공간은 하나의 구조체로서 일상 생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일 목적을 지닌 여러 개의 실(室)로 구성 되어있고, 동양에 있어서는 개개의 실(室)이 다목적 기능을 가져왔다. 또한 서구형 주거에서의 가구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각 실(室)에 가구가 없으면 실로서의 용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나, 한국의 전통가옥에서는 수납용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좌식용의 밥상이 있었을 뿐, 인체를 지지하는 것이라 가구이기 이전에 보료나 침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조원덕<sup>6)</sup>은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가구 소유 현황에서 보면 주공간의 크기에 비해 많은 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로는 대형 가구의 증가, 서구식 가구의 일반화, 가전제품의 증가, 취미·오락생활의확충 등을 들고 있고, 점유율은 평균 36.2%로 일본에서 나온 결과인 34%와 비교해서도 가구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면적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주행위 면적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 주거내의 소유 가구의 증가와 점유량에 따른 공간사용의 비효율성과 수납공간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구는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크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크기만큼 공간을 점유한다. 그러고 한정된 주거공간이 가구의 공간크기로 축소되고 이에 따라 주생활이 변하게 된다.

2) 이화실, 아파트거주자의 가구와 주거용품의 소유 및 공간효과,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3.

3) 정준현, 단독주택 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4.

4) 박윤성, 주거론, 문운당, 1987.

5) 박홍,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1990.

6) 조원덕, 가구 소유에 따른 주공간의 재구성, 한국주거학회지, 2권 1호, 1991.

가구의 양과 배치는 실 크기의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배치와 가구 자체가 갖는 특성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태에 영향을 주며, 가구 배치와 가구가 놓인 공간의 구성은 친밀감과 같은 실에 대한 함축된 의미나 역할에 영향을 준다.

2. 가구와 주생활 행위

인간이 주거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근원적으로 관찰하고자하는 대상은 인간의 행위이다. 또한 이 행위는 주거공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받으며, 이 행위의 결과로 시각적인 환경물이 생겨나는 것으로 주의식과 물적 특성을 통해 추정 가능하다

주공간의 주생활 행위는 크게 안방은 부부취침, 몸단장, 휴식·취미생활, 자녀생활로 나누어지고, 거실은 가족 상호작용, 소극적 단란, 공식적 접대, 개인생활, 가사작업, 비공식 접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안방은 대부분 취침 행위나 몸단장 행위 등의 개인생활행위가 주로 발생되어 가족단란, 식사, 손님접대 등이 행해졌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안방의 기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거실은 가족실과 공적인 기능이 혼재 되어있는 곳으로 외부 지향적인 특성과 내부 지향적 특성의 두 측면이 상충되어있어 가구사용이 TV를 중심으로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사용은 거주자의 주거행위 및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특히 아파트에서의 가구는 실내를 구성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므로 주어진 공간에서의 적절한 가구 배치와 사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거주자의 주거행위 및 의식에 부합되는 가구의 사용은 기능적인 주거공간을 창출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꾸밀 것이다.

III. 아파트 안방 공간구성의 사례분석

1. 가구사용

(1) 가구사용 실태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다양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과 주거공간사이에 오차가 생기게 된다. 즉, 주거는 생활의 변화에 뒤따르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되며, 생활해 가는데 지장을 주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거공간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야 할 곳이다<sup>7)</sup>.

이러한 주거공간에서 가구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가구선정과 배열은 거주자로 하여금 주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더욱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 인자로서 주공간 환경을 어느 정도 수정할 뿐 아니라 환경

표 4. 안방의 가구소유실태

가구종류	N(%)	가구종류	N(%)
장롱	105(100%)	TV	66(62.9%)
침대	76(72.4%)	오디오	28(26.7%)
사이드 테이블	21(20%)	비디오	29(27.6%)
화장대	76(72.4%)	컴퓨터	28(26.7%)
탁자	20(19%)	전화기	38(36.2%)
옷장용 서랍	67(63%)	청소기	29(27.6%)
문갑	32(30.5%)	소형수납장	4(3.9%)
책상	5(4.8%)		

에도 공헌한다. 이렇게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며 생활의 양식이 표현되며 가구 사용자의 신분,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주공간의 가구사용에서 나타난다.

안방의 가구 소유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장롱은 모든 조사대상 세대가 안방에 소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침대와 화장대를 각 72.4%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는 62.9%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옷장용서랍, 전화기, 문갑, 비디오, 청소기 순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기부터 입식가구의 도입이 활발해져 1990년대 이후는 입식가구가 정착되어<sup>9)</sup>로 안침대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안방이 사실(私室)로서의 특성이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입식생활의 증가는 안방에서 이루어졌던 가족의례나 식사 등의 전통적인 기능을 감소시켰으며, 부부전용공간으로 바뀌면서 서구화 되어가고 있다. 즉, 입식형 가구의 보급은 안방의 기능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구사용

주부연령, 학력, 월 평균수입에 관계없이 입식형 가구인 침대소유가 높게 나타났고,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수입과 주부학력이 낮을수록 좌식형 가구인 문갑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직업에 있어서는 사무직, 전문직에서 입식형 가구가 높게 나타났고, 생산직에서는 좌식형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산업화되면서 생활양식도 서구화되고 더불어 아파트라는 서구 주거의 도입으로 가구의 선택도 자연스럽게 서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거주특성에 따른 주생활 행위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부부취침과 자녀와 취침은 각각 83.8%와 9.5%로 이를 합산하여 보면 취침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7) 정준현, 단독주택 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84.  
8) 박윤성, 주거론, 문운당, 1987.

9) 장상욱,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표 5.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구소유

독립변수	종속변수	침 대	화장대	탁 자	문 갑
		주부연령	20대	6(5.7%)	3(2.9%)
	30대	22(21.0%)	24(22.8%)	8(7.6%)	5(4.8%)
	40대	43(41.0%)	28(26.7%)	10(9.5%)	6(5.7%)
	50대	5(4.8%)	19(18.1%)	2(1.9%)	16(15.2%)
	60대	0(0%)	2(1.9%)	0(0%)	2(1.9%)
주부학력	중졸	3(2.9%)	13(22.8%)	2(1.9%)	9(8.6%)
	고졸	36(34.3%)	24(22.8%)	8(7.6%)	14(13.3%)
	대졸	34(32.4%)	37(35.2%)	10(9.5%)	7(6.7%)
	대학원	3(2.9%)	2(1.9%)	0(0%)	2(1.9%)
남편직업	판매, 서비스직	9(8.6%)	5(4.8%)	0(0%)	3(2.9%)
	사무직	20(19.0%)	20(19.0%)	4(3.8%)	2(1.9%)
	관리직	7(6.7%)	7(6.7%)	4(3.8%)	0(0%)
	전문직	35(33.3%)	26(24.8%)	6(5.7%)	10(9.5%)
	생산직	5(4.8%)	16(15.2%)	6(5.7%)	15(14.3%)
	기타	0(0%)	2(1.9%)	0(0%)	2(1.9%)
	월평균수입	100-200만원미만	25(23.8%)	32(30.5%)	14(13.3%)
	200-300만원미만	32(30.5%)	24(26.1%)	6(5.7%)	7(6.7%)
	300-400만원미만	13(22.8%)	14(13.3%)	0(0%)	5(4.8%)
	400-500만원미만	6(5.7%)	6(5.7%)	0(0%)	2(1.9%)

표 6. 안방에서의 주생활 행위

주생활행위	N(%)	주생활행위	N(%)
부부 취침	88(83.8%)	자녀와 취침	10(9.5%)
휴 식	72(68.6%)	독 서	23(21.9%)
화 장	87(82.9%)	T.V 시청	46(43.8%)
옷갈아입기	90(85.7%)	가족의례	19(18.1%)
손님접대	5(4.8%)	가족과의 대화	17(16.2%)

며, 다음으로는 옷 갈아입기, 화장, 휴식 순으로 나타났다. 손님접대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안방과 사랑방으로 나뉘었던 부부별도의 취침공간이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안방의 다기능적인 특성 즉, 부부의 취침공간이외에 가족단란이나 응접공간의 성격은 하나의 방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식침(食寢)분리의 생활요구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기능적인 안방의 성격을 크게 변용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인 안방의 기능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안방사용이 주로 취침, 휴식, 옷갈아입기 등 개인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폐쇄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안방에서 TV시청은 단란을 위한 행위보

표 7. 평형과 평면유형에 따른 가구의 만족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주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평형	20-25평미만	0(0%)	4(3.8%)	8(7.6%)
25-30평미만	0(0%)		7(6.7%)	15(14.3%)	5(4.8%)	0(0%)
30-35평미만	2(1.9%)		8(7.6%)	27(25.7%)	4(3.8%)	5(4.8%)
35-40평미만	0(0%)		1(1%)	8(7.6%)	2(1.9%)	1(1%)
계	2(1.9%)		20(19.0%)	58(55.2%)	19(18.1%)	6(5.7%)
평면유형	입식수평형	0(0%)	11(10.5%)	17(16.2%)	6(5.7%)	0(0%)
	입식수직형	0(0%)	6(5.7%)	21(20.0%)	8(7.6%)	6(5.7%)
	좌식형	2(1.9%)	3(1.9%)	16(15.2%)	6(5.7%)	0(0%)
	계	2(1.9%)	20(19.0%)	54(55.2%)	20(18.1%)	6(5.7%)

다는 개인의 휴식을 위한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침실로서의 부부취침위주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안방의 가구사용에 대한 만족도<표 7>는 ‘불만이다’ 19.0%, ‘보통이다’ 55.2%, ‘만족한다’ 18.1%로 나타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안방 가구사용 불만이유는 디자인이 52%로 가장 많았고, 수납공간 부족이 32%, 공간을 많이 차지가 1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거주자는 안방가구의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공간점유율을 줄이면서 최대한의 수납공간을 확보한 가구가 요구되고 있다.

평형에 따른 안방의 평면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아파트 안방의 평형에 따른 평면유형은 30-35평미만에서 입식수직형이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30평미만에서 좌식형이 9.5%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크게 연관되지는 않게 나타났다.

또한 주부연령이 20대에서 입식수직형, 30대에서 입식수평형과 입식수직형이 높게 나타났고, 주부학력이 고졸에서 입식수평형, 대졸에서 입식수직형이 높게 나타났다. 남편직업이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입식수직형, 전문직에서

표 8. 평형에 따른 평면유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평면유형		
		입식수평형	입식수직형	좌식형
평형	20-25평	9(8.6%)	8(7.6%)	3(2.9%)
	25-30평	9(8.6%)	8(7.6%)	10(9.5%)
	30-35평	13(12.4%)	21(20.0%)	9(8.6%)
	35-40평	3(2.9%)	4(3.8%)	4(3.8%)
계		34(32.4%)	41(39.0%)	26(24.8%)

표 9.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안방 평면유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입식	입식	좌식형
		수평형	수직형	
주부연령	20대	3(2.9%)	3(2.9%)	0(0%)
	30대	8(7.6%)	14(13.3%)	5(4.8%)
	40대	20(19%)	19(18.1%)	6(5.7%)
	50대	3(2.9%)	5(4.8%)	13(12.4%)
주부학력	60대	0(0%)	0(0%)	2(1.9%)
	중졸	0(0%)	6(5.7%)	9(8.6%)
	고졸	19(18.1%)	13(12.4%)	6(5.7%)
	대졸	12(11.4%)	22(21%)	9(8.6%)
남편직업	대학원	3(2.9%)	0(0%)	2(1.9%)
	판매,서비스직	3(2.9%)	2(1.9%)	0(0%)
	사무직	2(1.9%)	18(17.1%)	2(1.9%)
	관리직	3(2.9%)	4(3.8%)	0(0%)
	전문직	24(22.9%)	11(10.5%)	12(11.4%)
	생산직	2(1.9%)	6(5.7%)	10(9.5%)
	기타	0(0%)	0(0%)	2(1.9%)

입식수평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때 거주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평면유형은 전반적으로 입식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면유형에 따른 주생활 행위를 살펴보면 입식형과 좌식형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행위의 분포가 나타나고 있었다.

좌식형이 전통주거 형태임에서 볼 때 좌식형에서 가족의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통적인 안방이 주거공간에 있어서 가장 근저적이며 주거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위치는-역학에서 북쪽은 수(水)의 방향, 생명 잉태의 공간-상징적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원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안방은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으로써 취급되어지는데 이 공간의 윗목 구석에 조상단지를 모심으로써 신과의 교류 즉, 열려진 공간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어 그 공간의 특성을 여성의 공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

표 10. 평면유형에 따른 주생활 행위

		평면유형		
		입식 수평형	입식 수직형	좌식형
주생활행위	휴식	28(26.7%)	29(27.6%)	15(14.3%)
	독서	10(9.5%)	8(7.6%)	5(4.8%)
	화장	30(28.6%)	33(31.4%)	24(22.9%)
	T.V 시청	13(12.4%)	19(18.1%)	14(13.3%)
	옷갈아입기	34(32.4%)	30(28.6%)	22(21.0%)
	가족의례	0(0%)	6(5.7%)	13(12.4%)
	가족과의 대화	14(13.3%)	0(0%)	3(2.9%)

이다<sup>10)</sup>.

평면유형중 좌식형 안방에서 가족의례가 행해지고 있는 근거라 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볼 때에도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형은 가족의례를 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 IV. 결 론

최근 거주자의 주거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생활방식과 요구를 수용하는 평면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의 안방 공간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주거공간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방의 가구사용 행태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안방의 소유가구 분포는 장롱, 침대, 옷장용 서랍, TV, 화장대, 문갑, 비디오 등으로 대부분 취침, 몸단장, 휴식용 가구들이 나타났는데 안방 가구사용은 입식형 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사용 유형간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기거양식에 의한 것이었다. 안방의 입식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입식 가구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구는 수납공간 확보와 더불어 디자인을 고려한 가구 사용을 원하고 있었다.

둘째,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가구사용 행태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안방의 가구사용 유형은 주부연령이 낮을수록, 주부학력이 높을수록 입식형 가구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가구와 공간사용 경향은 가구 입식화의 과도기적 성격보다는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평면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평면유형별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안방의 가구사용 유형별 주생활 행위는 T.V시청, 휴식, 화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입식형이 휴식, TV시청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단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휴식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좌식형은 가족의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평면유형에는 상관없이 안방은 입식형이 가장 뚜렷하게 개인생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 및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는 아파트의 전 평형과 전체공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각 실별 평면유형과 주생활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1. 박윤성(1997), 주거론, 문운당.

10) 고려대, 한국민속대관, 고려대 출판부, 1980, pp.67-83.

2. 윤정숙 외 2인(1956), 주거학 조사분석방법, 문운당.
3. 고려대(1980), 한국민속대관, 고려대 출판부.
4. 대한건축학회(1997), 주거론, 기문당.
5. 박 흥(1990), 실내디자인론, 기문당.
6. C N. Schultz(1995), The concept of dwelling, 이재훈 역, 태림출판사.
7. 이선수(1986), 주거행위 및 가구사용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계선자(1979), 居室空間의 活用に 關한 研究,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3.
9. 정준현(1984), 단독주택 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10. 장상욱(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이명옥 외(1991), 가구사용에 따른 거실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2권 2호.
12. 이진숙 외(1996),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이용실태 및 선호조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8호.
13. 조원덕(1991), 가구 소유에 따른 주공간의 재구성, 한국주거학회지, 2권 1호.

(接受: 2004. 7. 9)